

## August 21<sup>st</sup> Sermon

데이비스 부인은 아흔이 넘은 나이였지요. 제가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을때, 저는 때때로 잠시 내려가서 그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린소녀로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였는지를 얘기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테이블 건너 바라보며 아직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것을 맹세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 했지요.

그리고나서 대화는 안식일에 관한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데이비스 부인이 어렸을 때는 일요일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그날은 교회를 두번 갔겠지만 그녀는 놀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집 앞에서는 놀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순간 그녀는 승리의 기쁨으로 말하기를 - 집 뒤에 가서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주일날을 꽤 엄격히 지켰습니다. 상점가도 열지 않고 일요일의 스포츠도 없고 꽤 조용한 날이지요. 그런것이 마치 꽤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 일요일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된 것은 역사상의 좀 엉뚱한 결과지요 - 물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일요일에 만나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지요. 왜냐하면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고, 새로운 주의 첫날이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역사상 엉뚱하게도 일요일은 안식일이 되었고 데이비스 부인과 같이 어린 소녀들은 감히 집 앞 바깥에 나가 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졌던 날입니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 다섯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일을 하라, 네 모든일을 힘써 다 할것이나 제 칠일은 네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너의 집 문 안에 거하는 방문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 옛새동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일곱번째 날에는 휴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몇년전에 국가적 교회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믿음에 관해 묻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연합교단 교인들 사이에선 제일 인기가

없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중에 중요한 전환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해야하는 가에 대한 계명으로 전환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더 넓은 배경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가르침과 비유적 말씀과 치유에 목말라하는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밤에 도적처럼 임하니 깨어있으라고 충고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부와 재산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회당의 지도자들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안식일과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그 당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 순수성과 할례의 규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것들은 갈라지는 금이 생길수 있는 큰 이슈들입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초대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한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이나 굶어져 있었고 몸을 펴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서 병을 고쳐주었으며 그것이 회당의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에 가르치는 일 이상의 일을 했는데; 병을 고쳐주는 일을 했고 그것은 규범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행동은 훨씬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조용히 보내고 아무일도 하지 않는것은 사실상 안식일의 의도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잔치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일곱번째 날 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것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시고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간적 행사가 아닙니다. 매 칠년마다는 안식년입니다 - 그리고 칠 곱하기 칠은 희년을 만듭니다. 희년은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불평등과 부정의가 옳바로 세워지는 해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조용히 지냄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것이고 지구를 돌봄과 공동의 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집 앞에 나가 놀지 않는것 보다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과 희년에 관한 이런 생각들이 누가 복음서를 통해 그의 길들이 짜여집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시시한 논쟁들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정신은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전에 관한 노래이며 가난한자와 묶여 내려져 있던 자들을 들어올림에 관한 노래입니다.

안식일과 희년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이사야서의 구절을 읽을 때에도 찾아볼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그가 나를 보내사 갇힌자들이 풀려나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하시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의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치유에 관한 에피소드는 저로 하여금 이 설교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곡은 아이오나 공동체의 존벨과 그래함 모율이 만든 곡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이다'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그 곡은 잊혀지지 않는 전통적인 스코티시 '드림 앵거스'라는 곡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애통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학대 당한 느낌의 노래로 불러집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어떤 여자분 - 오랫동안 그의 영혼이 상처를 입었던 - 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의 한 남자 교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를 교회에서 입김이 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노래도 잘하고, 예전에 힘있고 콘트롤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회의를 할때 누군가 그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것에 대해 얘기할때면 그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는 우리들에게 그의 의견을 알게 할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새로운 찬송가를 많이 소개하곤 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 내가 소개한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드림 앵거스의 곡조인 이 곡은 좀 부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곡조가 아니고 가사를 말하는거였지요 - 하지만 우린 다 똑같이 불렀습니다.

어느날 예배가 끝났을때 필리스가 교회에서 나와서 저한테 한번 그녀를 방문해 줄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해 동안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은퇴자 거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녀가 먼저 부탁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찬송의 한 소절이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 소절은 남자들에게 치욕을 당한 여자들을 생각하며 라는 가사였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교회 끝나고 저에게 말을 걸게 만든 것이 이 찬송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는 아무도 성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사실 성적 학대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었지요. 그녀가 사춘기 소녀였을때 그녀는 여러번 학대를 당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자연스레 얘기할수 있게 내버려두었습니다 - 그녀의 순결을 더럽힌 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녀는 일생동안 정신 병원을 들락 달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60 년 동안 매주일 마다 교회를 나왔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자나 치욕을 당한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녀는 교회에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빛이 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속삭이기를 60 년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안식일에서 부터 그다음 안식일 사이에 그녀는 치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필리스는 그로부터 3 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장로는 교회에서 그 입김 센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한두달 쯤 후 어느 모닝티 시간에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리스는 최근 몇주는 완전히 다른사람 같았지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유를 얘기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두어시간 떨어진 그녀의 고향에서 행해졌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들이 준비했고 그들은 내가 필리스를 방문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동네의 목사님에게 예식은 맡겼고 그는 필리스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전혀 그녀가 내게 얘기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 그리고 나는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의 아버지에 관한 일을 얘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마치 아무도 모르는 사람처럼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필리스 당신은 정말 잘 해왔어, 오랜세월 동안 당신의 영혼이 병들어 찌글어지고 여기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때에도" 라고.

뭐라 더 얘기할게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갑니다; 안식일의 치유사역이 거기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설수 없었던 묶여있던 삶이 예배를 통해 치유되는 순간이 거기 갑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돌보라고 하시는 목소리이며,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의 얼굴을 내보이시며, 사랑받지 못한자들을 안아주시며, 고통과 치욕에 우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쉼터입니다.

아멘